기독교대한감리회
교 육 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제16차 감리교청년주일 지침서

Contents

청년주일 목회서신 / 1쪽

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 2쪽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 3쪽

청년주일 가로세로 퀴즈 / 5쪽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 6쪽

청년주일 모범예배 / 8쪽

청년주일 모범설교 1 / 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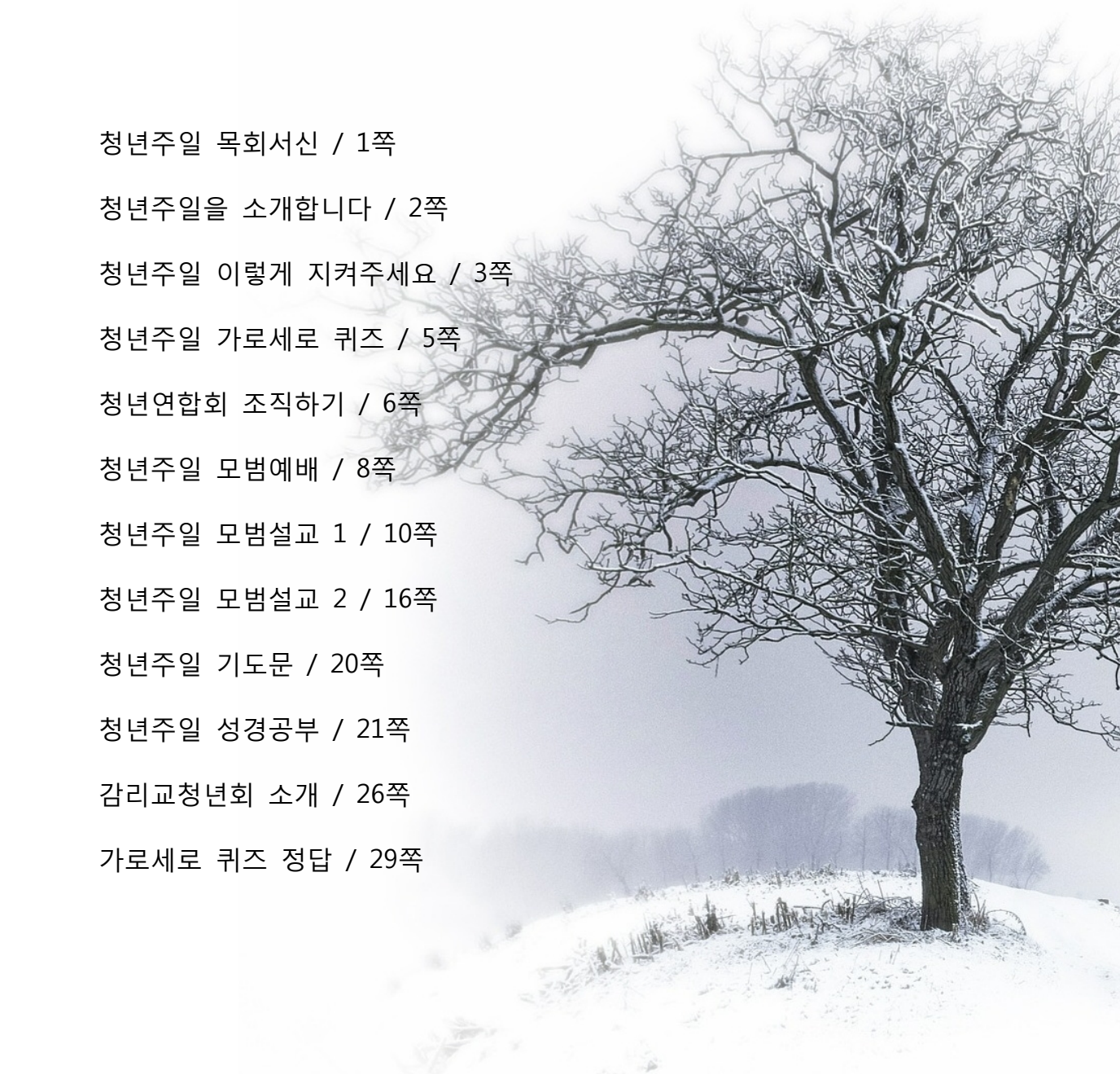
청년주일 모범설교 2 / 16쪽

청년주일 기도문 / 20쪽

청년주일 성경공부 / 21쪽

감리교청년회 소개 / 26쪽

가로세로 퀴즈 정답 / 29쪽



제16차 청년주일 목회서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오는 9월 27일(주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제16차 청년주일(주제: 함께라면)입니다. 바라기는 전국의 모든 감리교회가 청년주일을 거룩히 성수함으로써, 오늘의 주인이요 내일의 주역인 청년들을 향한 커다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년선교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과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엡웟청년회를 조직하여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와 민족의 내일과 희망을 가꾸어 왔습니다. 청년주일을 지키는 일은 바로 청년처럼 건강한 몸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려는 고백입니다.

청년 없이 교회의 내일이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지금은 청년 세대에 대한 선교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교회적 관심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 청년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어우러지고, 연륜과 패기, 전통과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셨습니다. 청년들의 눈으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교회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감리교회가 청년주일을 지킴으로써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새로운 시대에 열심히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감리교회를 푸른 교회로, 푸른 신앙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6차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각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6차 청년주일과 같이 하셔서 감리교회 청년부흥의 전기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6차 감리교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1897년 엡윗청년회에서 시작된 감리교청년선교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청년들의 헌신과 열정적인 신앙이 있기에 오늘날 한국감리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주일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결단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청년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또한 청년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지위 향상과 청년선교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1999년 12월 13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매년 9월 넷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제정하여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16차를 맞이하는 청년주일이 청년들을 위한 주일로 감리교 각 교회에서 함께 홍보되어 지켜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일시** : 2015년 9월 27일(주일)
※ 청년주일 당일 27일이 추석인 관계로 9월 중에 청년주일을 지키도록 권장합니다.

2) **주제** : '함께라면'

3) **주제말씀** :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 4장 9절)

4) **주제해설** : 우리들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누군가와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삶이 각박해질수록 '함께 살아감'의 가치는 옅어지는 듯합니다. 인생살이의 버거움이 우리에게서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여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제16차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감리교청년회가 나누고자하는 이야기는 '함께'입니다. 청년주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함께'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옅어진 '함께'의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회의 밑절미인 청년들이 '함께'의 가치를 뜨거움 가슴에 아로새기며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희망의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1. 9월 27일 주일 낮 예배를 청년주일로 지켜주세요.

-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선교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주일 낮 예배 시 청년주일 기도문을 사용해주세요.
-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 당일 추석이라 청년주일 예배가 여의치 않은 교회는 9월 중에 자유롭게 지켜주세요.

2. 청년주일 포스터를 부착해주시고 9월 넷째주가 청년주일임을 알려주세요.

3. 청년주일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 이벤트1 청년주일을 알려라! : 감리교청년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문 후 청년주일 웹자보를 공유해주고, 태그를 걸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2 우리 청년주일을 지켰어요! : 9월 27일(추석이라 여의치 않은 교회는 9월 중)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주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인증사진을 감청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 이벤트3 '함께라면' : 청년주일 성경공부를 진행한 후 적용부분에 예시된 레시피로 청년회가 함께 라면을 끓여는 사진을 인증해주세요.

4. 청년주일 지침서, 웹자보, 청년주일 지침서 등 각종자료들은 www.myfk.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들을 격려하는 애찬의 시간을 준비해주세요.

6. 청년들의 생활과 신앙의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세요.

7 청년주일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은 교회 청년회를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전국연합회로 보내주신 청년선교헌금은 지역연합회 활성화와 청년지도력육성, 국제지도력 육성에 쓰여 집니다.
- 헌금 보내주실 곳 : 우리은행 142-422823-13-001(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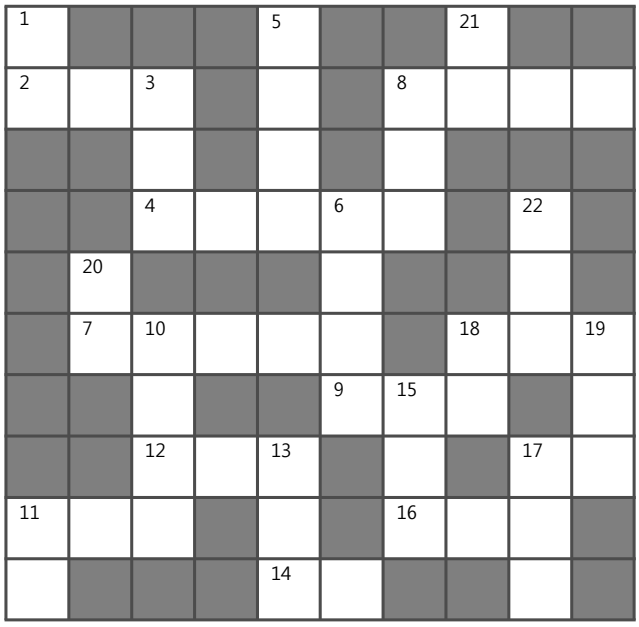
제16차 감리교청년주일

함께라면

2015년 9월 27일은
감리교청년주일입니다.

이 날은 감리교회의 다음 세대이며 교회의 밑절미인 청년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지켜주세요!

(※ 27일이 추석이라 여의찮은 교회는 9월 중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청년주일 가로세로 퍼즐퀴즈

※ 정답은 맨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 가로

2.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잠시 쉬어야겠다. 덕평에 있는 '이것(세 글자)'이 1등을 차지했다.
4. 9월 27일(9월 넷째 주) 청년주일의 주인공은?
7. 어원은 보고(report)이다. '르포'로 줄여 쓰기도 하는데, 어떤 사회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보고자(reporter)가 자신의 식견을 배경으로 하여 심층취재하고, 대상의 사이드 뉴스나 에피소드를 포함시킨 종합적 기사.
8.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가 아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큰 아픔을 겪은 이 날 사회의 만연한 위험성은 단지 교통안전의 수위를 넘어서서 정치와 경제,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로 이러한 위험사회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크게 대두된 '○○사회는?'
9. 감리교청년회 청년체험수련회의 풀네임은 '내 생애 완전 아름다운 ○○○'이다.
11. 당근의 또 다른 이름!
12. '구별된 자'란 뜻의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한다.
14.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16. 공장의 주인..을 세 글자로 말해보라!
17.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진 대표적인 곳이다. 최근 1호기의 부품이 낡아서 원자력이 방출되어 세 명의 사람이 죽는 참사가 있었다고 한다.
19.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보내진 앗수르 제국의 수도. 엄청나게 큰 곳이라서 다 돌아다니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 세로

1. 삼국 시대 위나라 패국(沛國) 초현(譙縣) 사람. 조조(曹操)의 조카고, 자는 문열(文烈)이다.
3.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멀어진 느낌. 인간의 활동으로써 만들어진 피조물에 도리어 인간이 지배당하여 인간 본질이 상실되는 과정을 인간○○현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바로 그 ○○의 감정.
5. 관중과 포숙아의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형편이나 이해 관계를 따지 친구를 무조건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일컫는다.
6. 매년 9월 넷째주는 감리교 ○○○○.
8. 7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기위해 정해진 제도였다고 한다. 유대 사람들이 7년 만에 1년씩 휴식하던 해로 현대에도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10. 나는 ○○○○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힌트 : 요한복음 15장!!)
11.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땅이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
13. 신경계, 생체의 반응성, 내분비계, 물질대사, 순환계 등등에 대한 작용이 뛰어난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을 갖춘 ○○을 끓여 만든 ○다! 뿌리 모양이 사람의 모습과 닮았다고 한다. 이를 끓여 만든 차.
15. 연극, 영화, 소설 따위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17. 주파수가 높은 상태.
18. 감리교의 창시자. 존 ○○○.
20. 문예 양식의 갈래. 특히 문학에서는 서정,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이른다. '갈래', '분야'로 순화
21.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
22.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이사랑했던 사람. 코제트의 생모.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이렇게 하세요~"

현재 감리교청년회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청년조직이 무너지는 지방과 연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합회 임원 구성조차도 버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감리교청년들의 역량도 그 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리교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토대를 만드는 일을 시급한 이를 위해서는 지방회의 목사님들과 평신도단체의 선배들, 청년들을 아끼는 모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조직되어 있는 지방이 있다면 지방 청년연합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청년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있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

Step 1 지방 청년들끼리 만나게 해주세요.

지방 청년들의 스스로 연합 모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크고 작은 자리를 마련하여 지도력이 될 만한 청년들이 만나 함께 서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교회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방 청년들 간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청년들로 하여금 연합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비전을 심어주세요.

청년들이 연합회를 통해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목회자님들의 다양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구체으로 청년들이 연합모임을 논의하고 서로의 비전들을 연합회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나누록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엮어내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Step 3 모음을 공식화해주세요.

지방회에 속한 청년교회들을 연합예배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총회를 가집니다. 임원을 선출하고 필요한 회칙을 수정하여 제정한 뒤,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직분을 줍니다. 새로 된 임원들이 처음 시작할 경우는 감리교의 구조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 임원들이 열정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Step 4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세요.

처음 연합회 활동을 하게 되므로 연합회의 사업기획이나 진행, 예산 결정, 후원금 받기, 청년들 모아내기 등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지방회에서 청년들의 연합활동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활동에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Step 5 다른 청년연합회와 연결시켜주세요.

연합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합회의 활동을 직접 보고 도전을 받아 자체적인 사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연합회의 모임인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모임을 통해 회의, 사업진행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얻게 해주고, 청년정책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도록 연결해 줍니다.

청년들의 연합모임이 활성화되어 감리교회의 건강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은 감리교회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입니다. 비록 공교회성이 상실되어가는 시기 속에서 연합의 가치와 연대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함께 함'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값진 일입니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일 모범예배

본 예배 안은 제16차 감리교청년주일 모범예배 안입니다. 모범예배 안을 참고하시되 개교회의 상황과 재량에 맞게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종 울림과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 **사회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 다함께 일어섭니다)

찬 송 ····· **다함께**

성도여 다함께(새 찬송가 29장)

교 독 문 ····· **다함께**

인도자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회 중 :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도자 :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회 중 :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도자 :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회 중 :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도자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회 중 :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도자 :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회 중 :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도자 :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회 중 :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인도자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회 중 :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 다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대 표 기 도 …… **청년회 임원 중**

말 씀 봉 독 …… **청년회 임원 중**

말 씀 …… **교회 담임목사**

(※ 청년주일설교 예문을 참고하여 청년을 위한 설교를 전합니다.)

결단의 기도 …… **다함께**

헌금 및 특송 …… **청년회 일동**

(※ 봉헌된 헌금은 교회 청년회를 위하여 사용해주시고, 헌금의 일부를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에 보내주세요. 감리교청년들을 위한 지도력향상과 선교 사업에 쓰입니다.)

헌 금 기 도 …… **청년회 임원 중**

광 고 …… **사회자**

(※ 다함께 일어섭니다.)

축복의 찬양 …… **다함께**

축 도 …… **교회 담임목사**

후 주 …… **반주자**

청년주일 모범설교 1

제목 :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 – 함께

이혁 목사(창천감리교회)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전도서 4장 9절)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고스란히 안고 흘러가는 계절이라는 시계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선물로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분주한 여름행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그 풍성했던 은혜들을 하나 두울 마음속에 헤아리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입은 삶이 더욱 익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 살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뜨거웠던 여름을 하나 하나 떠올려보세요. 그 소중한 추억 속에 함께 했던 믿음의 동행들의 환한 미소가 떠올려지지 않는지요? 또한 함께 걸었던 길, 함께 경험했던 은혜의 감격과 결단 등...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나무는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서 이뤄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숲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가꿔 키워내는 믿음의 나무들이 하나 하나 모여져 만들어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조차도 그 꿈을 함께 꾸고, 또한 그 책임을 다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만들어가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함의 가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기력과 불안감을 안고 사는 청년의 때

오늘은 제16차 감리교청년주일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열려있어 꿈과 기대를 한껏 머금은 때이기도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미묘한 시소타기에서 그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습니다. 젊음의 때에 자연스럽게 발동했던,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도전의식도 골리앗처럼 서 있는 견고한 현실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시작도 해보지 않은 일에조차 패배의식을 가지고 다가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현실 앞에 이 시대의 청년들의 존재감과 자의식, 그리고 미래의 꿈은 한없이 작

아지기만 합니다.

2001년에 작고한 '설악의 시인' 이성선 시인이 쓴 『다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가 전해주는 여운은 깊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작아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 시는 어렴풋하게나마 알려주는 듯 합니다.

다리를 건너는 한 사람이 보이네 / 가다가 서서 잠시 먼 산을 보고 / 가다가 쉬며 또 그러네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네 / 빠른 걸음으로 지나서 어느새 자취도 없고 / 그가 지나고 난 다리만 혼자서 허전하게 남아 있네

다리를 빨리 지나가는 사람은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네

이 시 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쉬엄 쉬엄 주변의 풍경도 바라보며 다리를 건넙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 목적한 바를 향해 빠르게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의 지나간 자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버린 것이지요. 처음 사람은 주변을 의미 있게 바라보아 그 걸음 또한 의미 있게 해주었고, 그가 딛고 있던 다리의 존재의 이유도 의미 깊게 만들어주었지요. 그러나 그 다음 사람은 모든 것을 무심히 지나쳐 버려 그의 걸음도, 다리의 존재 이유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심지어 세상을 외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리를 외롭게 했던 빠른 걸음들은 이내 거친 숨소리로 바뀌고, 그 힘겨움과 여유 없음으로 인해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경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를 자신의 성공에 기여해야 할, 또는 경쟁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서로를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도 묻지 않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우린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 없이 '지금'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살아온 생의 결과로 이토록 무정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한 세상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커녕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과 잡힐 것 같지 않은 아득한 희망에 대한 허무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위한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청년들의 몫으로만 돌리지 않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좋은 세상을 향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선 세대들이 그 길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잘못 걸어왔던 앞선 세대의 통렬한 회개와 돌아섬이 선행되어야 하고, 미래의 주체가 될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패기와 도전이 어우러질 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앞선 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좀 더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의 밑그림을 그릴 단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함의 가치'

아마도 질퍽한 현실에서 벗어나 볕 좋은 세상을 향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킵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함께 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바로 '함께 함'입니다.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함께 함'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이 바로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한 동역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새 시대의 문을 연 노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 상황을 역전시킨 굳은 믿음의 사람 요셉,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가나안땅 안착을 도왔던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증거해 보인 선지자 엘리야 등 셀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며,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큰 희망입니다.

이렇듯 '함께 함'의 가치가 중요하기에 성경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1360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비단 그 사용빈도수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가치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할 삶의 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자의 권고 – 함께하라!

오늘 본문은 전도서(코헬렛[1] קהלת)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담겨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구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1)일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행복을 찾아가려는 모든 노력조차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코헬렛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헬렛은 인생의 허무함을 왜 그토록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인간세계의 부조리한 현실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조리한 현실들의 모습들이 전도서 4장에 고스란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갖 억압이 이루어져 억누르는 사람은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 억압에 억눌리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4:1).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직 살아 숨 쉬는 사람보다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할 정도입니다(4:2) 아니 이 둘보다 더 복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들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1) '코헬렛'은 대개 '회중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이'를 가리키고, 우리는 이를 '전도자', '지혜자'로 부르지요.

말하기까지 합니다(4:3). 저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을 위해 벌이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잘 살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4:4). 이러한 삶의 양태에서는 자연스러움 대신 교묘하고 무리한 방법이 동원이 되고, 그러한 반칙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면서 건전한 관계들이 파괴되고, 공동체도 깨어지게 됩니다. 힘 있는 이들의 폭력을 은근슬쩍 눈감아 주고, 온갖 반칙이 용인되며,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지 않는 세상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작아지고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린 4:8절에 나오는 외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을 봅니다.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삽니다. 그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진정한 친구를 찾기 보다는 일에 중독됩니다. 외로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쉼 없이 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불어나지만, 이미 삶의 원칙도, 그것을 위한 선한 방법도 잃어버린 그였기에 본질적인 삶 이외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어난 재산에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르기에 불평만 늘어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그의 이 독백은 외톨이 현대인들,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의 독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늪에 빠져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지만 그럴수록 더욱 빠져드는 모양과 같습니다.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코헬렛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함’(4:9)입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너무나 단순한 진리 한 가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체득하여 우리에게 이런 속담을 전해주었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무엇이든 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 기쁨은 함께 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하면 반이 된다고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둑한 우리의 현실에 한줄기 환한 빛줄기를 건네줍니다. 좋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함께 함’으로 가능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만, 더 기분 좋은 일은 동무가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줄 누군가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든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4:10). 스스로를 패배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마다 걷던 길에서 쓰러져 일어설 줄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를 일으켜줄 누군가가 그의 곁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이 처절한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나를 위로해줄 누군가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외로움을 형상화 한다면 아마도 웅크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몹시 추위를 탈 때 몸을 웅크리게 되지요. 외로움은 인생의 겨울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누군가 동행이 되어준다면, 그리고 그가 내 웅크린 외로움을 달래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따

뜻해질까요? 둘이 있으면 따뜻해집니다(4:11). 따뜻함은 빛의 속성입니다. 둘이 있으면 우리의 습했던 우리의 인생에 밝은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따뜻해지고 환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 자신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일진데,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버거운 싸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 함께 싸워준다면 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충분히 맞설 수 있습니다(4:12).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지리멸렬한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빠져나와 환하고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한 몸 된 부부조차도 그 살아온 이질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로 힘들어 할 때가 있지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이 이러한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다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 가운데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제이면서 국회의원으로도 활약을 하셨는데, 특히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공동체 엠마우스 공동체 설립자로 유명하지요.

국회위원으로 일할 당시 전직 목수인 전과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희망 없던 그와 함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하면서 프랑스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엠마우스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40개국이 넘는 나라에 350개 공동체, 프랑스에서만 110여 엠마우스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구절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지요.

"나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두 가지 태도만이 바르다고 마음속 깊이 확신한다.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고통 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것이 신앙에 대한 설교일지라도 말이다. 다만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자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피에르 신부는 고통과 좌절에 익숙한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기꺼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행에 옮기니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과 신음은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이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그 아름다운 변화는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전형입니다.

피에르 신부를 통해 우린 함께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독과 번민과 고통 중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들입니다. 세상에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대게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 고통에서 헤어 나올 여력도 없어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길거리로 나와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향해 목놓아 외치기도 합니다. 뜻 있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외롭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가득한 절망과 무기력함에 세상만을 탓 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러한 변질의 과정에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젖어있지 말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고 적극적인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과 절망을 회피하지 말고, 그 아픔과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내 자신도 아프고 힘든데..하며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 안의 아픔과 절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주변을 그 선한 기운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마11:12). 누구나 세상을 탓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현실의 절망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는 책임적인 사람들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 혼자라 느낄 때조차 한결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마태 28:20)는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곤고한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시간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시를 만났습니다. 이 시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칩니다.

〈참 사람이 사는 법〉 詩 박노해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 친절하게 살자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 마음을 열고 살자
좀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 하늘을 상대로 하는 것
우리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 내 안의 빛을 찾는 것

청년주일 모범설교 2

제목 :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감리교회 청년들이여 !

원성웅 목사(옥토감리교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3~16)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들도 옛날에는 미개한 나라였고, 그 조상들은 야만인이라 불리웠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지금은 국민성도 친절하고 정직할뿐더러 세계의 가난한 나라와 지진이나 해일 등으로 재난 당한 곳에 구제도 먼저 하고 선교사도 많이 내보내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상은 바이킹이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은 북극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겨울이 길고 여름은 아주 짧고, 눈도 많이 오고 추워서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항상 양식이 부족하던 바이킹족들은 나무를 잘라서 만든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닥치는 대로 마을에 불을 지르고 곡식을 약탈하며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을 잡아 왔고, 때로는 무역하는 상선을 습격하는 해적이 되기도 했었다. 바이킹은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멀리 영국과 프랑스 해변 아래쪽까지도 원정을 내려가서 해안마을 뿐 아니라 수도원과 교회들마저 불태우고 노략질을 일삼았다. A.D 9 세기경에는 바이킹족의 침입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대재앙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한 바이킹족을 구원하기 위해 영국의 수도원에서 파견된 안스카(801~865) 선교사를 필두로 많은 선교사들이 거칠고 위험한 바이킹 족의 본토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헌신적인 선교를 하였다. 이 겸손하고 사명감에 넘친 선교사들의 섬김의 결과로 그 야만인들 중에서도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서 거칠고 무자비한 습성과 생활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그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던 옛날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문명국가요 모범국민들이 되어있다.

또한, 영국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신사" (gentleman)라는 말이다. 그런데 영국은 원래부터 신사의 나라는 아니었다. 영국인의 조상인 켈트족과 앵글로족과 섹슨족은 다 야만족이었다. 국토 자체가 하나의 섬으로 된 영국은 로마에서 파견된 성 패트릭 선교사에 의해 일찍이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바이킹의 침략이 없어진 후로는 농업과 해상무역에도 힘을 쏟았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서구에서 제일먼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도를 비롯한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였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기 시작했는데, 스페인 포르투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노예매매로 돈을 벌어 18세기 중반에는 노예매매 수입이 국가 예산의 1/3이나 되었다 한다. 당시 영국의 귀족들은 사치와 방탕, 술과 도박과 음란에 빠져있고 하층민들은 중노동과 가난의 대물림과 알콜 중독에 빠져있었다. 영국은 카톨릭에서 독립한 성공회가 국교였지만, 당시의 성공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로 감화를 주지 못하는 귀족들과 상류사회의 종교일 뿐이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거칠고 야비하고 비인간적이어서 아주 위험했고, 극빈자들과 노동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런 영국 사회가 크게 새로워진 계기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죤 웨슬리(1703~1791)와 촬스 웨슬리 형제와 명설교가 죠지 휫필드가 가세한 감리교운동이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죤 웨슬리 목사의 회심(1738년5월24일)이후로 영국의 서민과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국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세계적으로 널리 불리는 이 찬송가(305장)를 작시한 죤 뉴톤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으로 노예무역에 관여하며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악몽을 꾸고 나서는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깊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서 1779년에 이 찬송시를 지었다. 죤 뉴톤은 웨슬리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감리교회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끼쳤는데, 이 죤 뉴톤 목사에게 크게 감화를 받은 청소년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일에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윌리엄 윌버포스(1759~1833)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1809~1865)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보다 먼저 영국의 하원의원으로서 흑인 노예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국 사회에 팽배한 도덕적 타락과 더럽고 부패한 사회적 관습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경건한 그리스도인 정치가였다. 윌버포스는 20대 후반에 벌써 하원의원이 될 정도로 연설도 잘 했고, 목소리도 좋아 노래도 잘 부르고, 성격도 좋아서 영국 상류사회의 귀족들에게도 환영 받는 아주 잘나가는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한 동안 사치와 방탕에 젖어 방종한 생활 하다가 자신이 일찍이 청소년기에 접했던 복음적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면에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밤 죤 뉴턴 목사님을 찾아 가게 된다. 마치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유대 산헤드린 의원 니고데모처럼, 유명한 젊은 정치가 윌버포스도 당시에 영국 국교회에서 핍박받던 감리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것이었다. 윌버포스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속적인 정치 생활을 접어야 할 것인가도 생각했으나 뉴톤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그리스

도인 정치가로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회심한 그리스도인 정치가로서 그는 당시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노예무역의 불법성과 폐해를 널리 알리고 막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와 아울러서 영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타락과 악습과 폐해를 고쳐나가는 일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헌신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윌버포스가 노예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원에 제출하자 반대파들은 결사적으로 저지하였다. 그가 "노예매매 제도가 비 성경적이고 불의한 일이며 이런 일을 계속하는 한 영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고 연설하면, 반대자들은 "우리가 안하면 프랑스가 노예매매의 이익을 다 가져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의 1/3이 거기서 나오므로 노예무역을 폐지하면 나라가 파산하게 될 것" 이라고 받아쳤다. '영국 통치령 안에서 모든 노예매매를 금지한 법안' 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윌버포스가 국회에서 연설한 것이 150번이나 되었고, 수십년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드디어 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사흘 후에 하나님은 윌버포스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셨다. 실로 인생 전체를 건 의로운 싸움 중에, 그를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여러 번 받았으나, 윌버포스의 선한의지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노령의 죤 웨슬리 목사님도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격려와 기도를 해 주었고, 죤 뉴톤 목사와 많은 복음주의 크리스챤들이 그의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영국이 노예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도 노예매매 금지법이 통과되어갔다. 노예들의 인권은 현저히 개선되어 갔고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잔인한 노예사냥도 점점 시들해져가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운동도 일어났다. 윌버포스라는 그리스도인 하원의원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영국사회를 보다 밝고 의로운 사회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 결과 영국 사회가 비도덕적 사회에서 도덕적 사회로 변화되어 갔고, 폭음과 음란과 폭력과 도박과 저질스러운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 절제되고 품위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가기 시작했다.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영국의 하원의원 중에 1/3이상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헨리 퍼킨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1780~1850년 사이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난폭하고 노골적이고 떠들썩하고 살벌하기로 이름 난 나라 중 하나란 오명을 벗어던지고, 가장 절제되고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하며 따듯한 마음씨를 가진 얌전한 민족 중의 하나가 되었다." 데이비드 뉴섬은 "아마도 영국 역사에서 빛나는 빅토리아 왕조의 탁월함 뒤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은 복음주의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에릭 스토크스는 "복음주의는 19세기 영국인의 인격의 토대가 된 반석" 이라 묘사 했다.

오늘 우리나라는 각 분야의 급격한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나 남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 면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하고 가증하며 파렴치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로이 가슴에 울려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따라 헌신한 제자들은 청년기에 예수님을 따랐다. 웨슬리 형제도 옥스퍼드 대학시절부터 '홀리클럽(Holy Club)' 운동을 벌였다. 윌리엄 윌버포스도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에서 회심한 후로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치가로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바쳤다. 우

리나라에 들어 온 아펜젤라 선교사도 26세의 젊은 나이로 들어와 자신의 인생을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 바쳤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세속화와 퇴폐주의 문화와 '안티 기독교인' 들의 발호,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전반적 부패와 타락,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지의 지대한 과제들...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위해 주님은 오늘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주님은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돕는 사람들도 붙여 주신다!

사랑하는 감리교회 청년들이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라!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기도하며, 꿈을 품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틀림없이 좋은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고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열심히 하여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

청년주일 기 도 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청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선각자들로,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개척자들로 청년들을 사용하심을 기억합니다.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1)*

창조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높음과 낮음, 귀함과 천함, 그리고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으로 인간의 그릇된 가치로 판단하여 낮고,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업신여기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숨길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어떤 존재 하나도 버려짐 없이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잉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관하고 산다고 하여 달관세대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한심하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청년 한 개인의 문제일 뿐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어렵고 버티기 힘든 시절이지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14)*

산 소망이신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모닥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불태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청년세대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자 희망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경쟁하며 남을 이기며 살아가기 보다는 굶주린 형제자매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시대에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 안락함과 화려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맘몬과 편안함 앞에 우리의 삶이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주시옵소서. 성공하기만을 부추기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살림과 나눔이 일어나는 생명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 앞에 당당히 서며 불의 앞에 맞설 수 있는 정의로움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일구는 손과 발임을 믿습니다.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예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으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주일 성경공부

주제 : 함께라면

본문 말씀 : 전도서 4장 9 – 12절(새번역, 대한성서공회역)

9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11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2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 마음열기

1) 전체 본문 말씀을 모두 함께 소리 내어 읽어봅시다.

2) 오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고 1분 동안 침묵하며 묵상해봅시다.

둘 생각해보기

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2) 삶의 버거움과 어려움을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극복했던 경험이 있나요?

셋 깊이 바라보기

각자의 삶이 각박해지고 버거워질수록 '함께 살아감'의 가치는 옅어지곤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세상이 그들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여유를 빼앗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지혜의 서 '전도서'는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면서 '함께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원하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가르침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간과되기 힘든 '함께 살아감'의 가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반드시 지켜내야 중요한 가치입니다.

넷 삶으로 향하기

1)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적인 요인들 :

외적인 요인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함께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 '함께라면' 우리교회는 _____ .
- '함께라면' 우리청년회는 _____ .
- '함께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_____ .
- '함께라면' 나는 _____ .

다섯 함께 애찬 나누기

1) 아래의 레시피로 청년회가 '함께라면'을 조리하여 애찬을 나누어봅시다.

2) **EVENT! 애찬을 나눈 사진**을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페이스북페이지 업로드 하여 **인증해주세요.** 인증을 해주신 교회 청년회에게 두고두고 먹을 수 있도록 **라면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감리교청년회 페이스북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youthsunday94)

여섯 기도하기

※ 돌아가며 함께 기도함으로 청년주일 성경공부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밟는 땅과 숨 쉬는 공기에서
당신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마음을 아래에 두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등심을 갖게 하소서

다른 이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세상 만물 중 작은 하나임을 가슴깊이 느끼게 하소서.

삶 속에 고통의 바다를 만날 때
당신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당신의 고행을 생각하게 하시며
피하기보다는 순응케 하시어
스스로 졌던 짐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소서.

걸음걸이 하나에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내 몸같이 아끼게 하시어
함부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한마음 거둘 때가 오면
맑은 정신으로 그 때를 맞게 하시어
한순간 낙엽이 떨어지듯 세상에 인연이 다한 날
선한 눈매 선한 웃음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하소서.

이해인 「작은 기도」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소개합니다.

1. 감리교청년회 소개

기독교대한 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웨슬리 선생님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를 극복함으로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남의 장입니다. 1897년 시작된 감리교청년(당시 엡윗 청년회 엡윗은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 명칭) 운동은 신앙운동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넘어 21세기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요청과 부름에 충실하며 한편으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 숨은 일꾼으로서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2. 감리교청년회의 목적

1)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을 계발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2)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각 청년연합회와 연결하여 개체교회 청년회 연합 사업을 지도계획 실행합니다.
4) 세계 감리교 청년운동 및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대하여 기독청년운동과 교회 일치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교 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감리교청년회 58회기

1) 주제 : ‘함께 웃기, 함께 걷기, 함께 살기’
2) 주제성구 :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3) 전국임원 :

회장	조호원	위원장	이봄빛(홍보통신)
부회장	이슬비		안주영(평화통일)
부회장	백승훈		함지혜(국제협력)
총무	하성웅		김창원(성서연구)
서기	박은진		홍주영(사회문회)

4) 감리교청년회 사업방향

① 연합조직으로서 감리교청년회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되어주는 지방연합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는 현재 무너지고 있는 지방연합회를 살리는 사업들을 고민해야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② 날이 갈수록 기독교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시대의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메시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우리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들, 교육프로그램들, 교육 자료들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③ 시대적 요청과 마주하여 감리교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사회적 현안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그것에 응답해야하며 청년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4.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사업

1) 상시 사업

① 교육사업 : 감리교청년들의 역량과 청년회조직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몸으로 성서읽기, 평화놀이, 청년지도력 훈련, 영어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나아가 우리시대의 청년들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② 국제연대사업 : 감리교청년회는 감리교청년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로서 국제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감리교청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기르고,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③ 국내연대사업 : 감리교청년회는 다양한 단위들의 청년단체와 교류하고 있으며, 사회선교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목적은 기독청년들의 힘을 모아 시대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자 함이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나가는데 있습니다. 감리교청년회는 다양한 단위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교회와 사회를 향해 작지만 옹골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④ 조직강화사업 : 현재 감리교청년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사업입니다. 무너진 지방과 연회의 연합회를 세우고, 아직 조직되지 않은 지방을 새롭게 조직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

은 조직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히 본부 및 평신도 단체들과 협력하여 연합회 조직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⑤ 홍보출판 사업 : 홍보출판 사업은 교회와 지방, 연회에 적극적으로 감리교청년회를 알리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사업과 소식지 발간과 자료집 발간을 진행하는 출판 사업입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청년주일 자료집, 체험수련회 공과, 그루터기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사업

① 감리교청년체험수련회 '내 생애 완전 아름다운 일주일' : 도시청년교회와 농촌교회의 연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농촌교회를 찾아가 봉사하는 국내선교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7월, 8월 10~15명의 청년들이 한 팀이 되어 농촌의 교회를 찾아가 여름성경학교, 교회보수, 농촌 일손 돕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② 청년주일 : 매년 9월 넷째주는 감리교청년주일로 지킵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주일이 있듯이 9월에는 청년주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감리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력이며 교회의 밑절미인 청년들의 존재와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세대의 감리교회에게 청년다움을 심고 예수를 따르는 패기와 열정을 다시금 마음에 아로새기는 주일입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청년주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재를 만들고, 이벤트를 열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감리교청년회의 조직재건과 부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위원회 사업

① 성평등위원회 :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위원회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내 성평등을 이뤄내고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 감리교여성연대 참여
- 성평등관련 학습

② 사회문화선교위원회 : 감리교 사회문화선교위원회는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 교회내의 청년문화를 새롭게 되짚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문화선교사업
- 사회적 이슈 현장 방문

③ 성서연구위원회 : 성서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시대정신에 의해 발견되는 청년예수를 만나기 위해 연구하는 위원회입니다.

- 청년교재 및 묵상집 집필
- 청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④ 평화통일위원회 :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국에서 평화적인 통일 지향의 정책과 감리교청년들의 역할을 고민하는 위원회입니다.

- 평화통일 세미나 참여 및 학습
- 통일관련 단체들과 연대

⑤ 홍보통신위원회 : 홍보출판, 통신 선교 사업을 진행합니다.

- 격월소식지 그루터기 발간, 리플릿 발행
- 감리교청년회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 관리

5page 퍼즐 퀴즈 정답

조				관			반		
휴	게	소		포		안	전	사	회
		외		지		식			
		감	리	교	청	년		팡	
	장				년			티	
	르	포	르	타	주		니	느	웨
		도			일	주	일		슬
		나	실	인		인		고	리
홍	당	무		삼		공	장	주	
콩				차	별			파	

감리교청년회 후원 안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년으로 비젼과 사명감으로 청년선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을 위해 저희들 뿐 아니라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후원을 통한 적극적 실천과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 시대와 교회와 이웃과 함께 섬기며 나누겠습니다.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와 참 평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 일꾼 감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작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은 새천년 정보화 시대를 맞아 민족의 통일시대를 향한 청년활동과 감청의 제2부흥을 선포하고 이웃사랑 실천 및 전인적인 영성훈련, 소식지 발간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향한 활동과 국제선교, 한국교회의 청년지도자 양육 및 미래일꾼 발굴을 위한 선교비로 쓰여 집니다.

청년선교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회원 뿐 아니라 개체교회 등 단체회원등도 환영합니다. 후원회원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방법
후원계좌 : 142-422823-13-001 우리은행
예금주 :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CMS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http://myfk.or.kr
작성하신 신청서는 감청메일로 보내주세요 myfk@hanmail.net

펴낸 날 2015년 8월 25일 펴낸이 조호원 엮은이 사무국
펴낸 곳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연락처 02)399-2086/2170
주 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3층
누리집 myfk.or.kr & facebook.com/youthsunday94
전자우편 myfk@hanmail.net